고은 불교 대하소설

무육도 결사(結社)

〈22〉

> "한오리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결사의 뜻에 복종하는 연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밤은 어느 세월보다 길고 깁니다" 횃불에 비친 얼굴들이 특별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사는 몸의 한쪽을 바쳐 온세상을 얻는 일" 7일 용맹정진후 열사람은 손가락 한마디씩을 불길속으로 넣으면서 고통을 견디는 동안…

새벽 축시(丑時)의 어둠은 그 어둠에 비례해서 별들이 힘차게 빛나고 있다.

누군가 이같은 새벽에 밖으로 나와 그런 별빛 아래 서 있게 되면 결코 그 별의 세상과 이 세상이 각각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미 그 별빛이 사람의 눈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 섬의 갈대정사에는 대웅전이 없다. 대웅전의 닷집도 있을 리 없다. 대웅전이 없으므로 수미단 불상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인담이 혼자 건너와서 살고 있는 처소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그 뒤로 우녀가 오고 하나둘씩 사람이 오게 되어도 아직까지 불상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수계식의 계단(戒壇)도 바깥의 너럭바위였던 것이다.

오직 한 사람 합두가 우녀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곳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지요?"

"부처님이야 내 마음속에 계시니… 잘 때나 깰 때나 내가 곧 부처님이니… 어디 인담스님께 여쭈어보시기로 합시다… 정녕 모셔야 할 일이거든 뭍의 어떤 밭두렁에 박힌 석불이라도… 오래동안 비어둔 절에 남겨진 부처님 한 분이라도 업어오면 되겠지요"

새벽부터 아침 밥을 먹을 때까지의 좌선과 좌선 사이의 행선(行禪)이 있다. 아침부터 사시 공양까지도 마찬가지이다. 그 뒤로 저녁 약석(藥石)시간까지 내리닫이로 좌선이다.

저녁 예불 뒤 좌선이 이어져 자시(子時)가 되면 한밤중의 죽을 먹는다. 밤에 일하는 노동자가 밤참을 먹는 것처럼 철야 좌선하는 사람들에게도 밤참이 있는 것이다.

밤참 뒤 아주 잠깐동안 쉴 때 자칫하면 잠에 빠지기 쉽다.

다시 앉아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죽비(竹篦)대신 막대기를 든 동료로부터 어깨를 얻어맞는다. 그런데 8명의 남자는 2명의 여자 수행자의 좌선이 진지한 것에 따라 가려는 듯이 새삼 분발하였다.

첫날을 보낸 뒤 두번째날의 낮과 밤은 첫날보다 잘 되었다. 바늘을 가지고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했던 옛 선승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 중의 수원이 머리를 벽에 찧어 잠을 쫓았다. 눈꺼풀이 열 근도 넘게 묵직해진다.

그럴 때는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은 것이다.

하지만 새벽잠이 더욱 무섭게 몰려온다. 막대기 얻어맞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바쁘게 들린다.

아니 막대기 경책을 받기 위해서 졸음이 오는 만화가 고개를 내밀어 어깨를 때려달라 자청하기도 한다.

사흘째날의 밤이 가장 힘들었다. 꾸벅이는 사람이 늘어난다. 막대기소리가 밖의 캄캄한 파도소리 사이에 몇번씩 들린다.

이런 밤이 지난 나흘째는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다섯째날 막대기 경책이 바빠졌다.

여섯째날 눈을 뜨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다. 혼침(昏沈)에 빠진 것이다. 어느 쪽이 동쪽인지 드나드는 문 쪽인지 모르게 된다.

그러다가 결가부좌의 견고한 자세로도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한다.

일곱째날의 밤을 지냈다. 새벽 축시 드디어 7일동안의 철야 정진을 끝낸 것이다. 그동안 충혈되었던 만화와 남각의 눈도 어느새 밝아져 있었다.

이 정진 뒤 몇사람은 하루내내 잠 속에 빠져있었다. 합두가 힘들게한 밥도 거의 남아 있었다.

우녀도 한나절을 잠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예성강 갈대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담에게 말하는 우녀는 어느 때보다 수행자의 아주 밝은 얼굴로 되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니승 합두는 이번의 첫 정진이 여간 어려운 고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떻게 7일이 지나갔는지 그 7일동안의 철야가 아주 먼 과거를 다 채우고 있는 악몽처럼 여겨졌다.

화두를 든 좌선이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임제(臨濟) 이전의 묵조선(默照禪)이었다. 그러나 묵묵히 앉아 있다고 해서 허망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묵조에도 의단(疑團)의 길(露路)이 살아있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없애라(念起卽覺)

아무튼 7일동안의 용맹정진이 망상의 시간이거나 수마(睡魔)의 시간이거나를 막론하고 수행자에게 앉아있는 의지를 길러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방바닥 장판때가 10년쯤 묻어나야 한다는 선방 속담이 있거니와 이 섬의 사람들도 그런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사흘이 지난 뒤 우녀가 함께 정진했던 갈대암자 큰방에 사람들을 모아서 말하였다.

"이제 우리 무육도 수행자들은 한가지 뜻에 모였습니다. 일러 무육도 결사(結社)를 이룩한 셈입니다. 이 결사로… 앞으로 3년을 지낸 뒤 우리는 저마다 맡은 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굳은 결사를 어떤 술취한 코끼리의 힘으로도 흩어 버리지 못합니다"

인담이 그녀의 옆에서 말을 보탰다.

"금강불괴신(金剛不壞身)이 곧 결사의 심신입니다"

비록 우녀의 몇마디나 인담의 한 마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실로 비장하였다. 특히 남각이라는 새 법명을 받은 남처사는 그가 섬을 몰래 달아나려다가 손목 하나를 잘린 터여서 그의 새삼스러운 결의는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처절할 정도였다. 굵은 눈물방울을 몇번씩 떨어 뜨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무육도의 결사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수계식 때 미루어둔 연비(燃臂) 절차가 남았다.

그동안의 정진 끝에 결사를 선언한 그 날밤 섬의 사람들은 전부 파도소리를 등지고 섬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미 그 꼭대기 밑의 움막 정사(精舍)에는 무전과 파현 수원들이 가서 산꼭대기 바위 위에 소나무가지를 잘라 둘러놓았고 횃불도 서너개 마련하였다.

흔히 수계식의 참회와 새로운 서원(誓願)을 표상하는 연비를 미루어둔 것은 우녀의 뜻이었다. 그녀는 결사의 밤을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해서 연비를 늦추었던 것이다.

하지만 초의 심지도막이나 팔뚝의 살갗에 붙여 살갗 한 군데를 태우는 정도의 연비가 아니라 손가락 일부분을 손톱채 산꼭대기 불구덩이에 넣어 지져 없애는 연비였다.

본래 연비의 연원은 우선 달마를 만난 혜가에게서 비롯되는지도 모른다. 달마가 거들떠보지도 않자 해가는 그의 왼쪽 팔뚝을 잘라 스승 앞에 바친 것이다. 실로 말릴 겨를도 없거니와 그것을 모르는척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진리에의 사무치는 마음이 이같은 소중한 몸의 일부를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로 중대한 구도(求道)의 결단에는 이러한 팔뚝을 자르는 비장한 행위가 살갗을 태우는 행위로 바뀌어 연비의 절차가 있게 되었다.

한갖 계율에 이 연비를 맞추기보다 결사의 밤 행사에 사용한 것이 극적이기까지 하였다.

어느 정도의 바닷바람이 어둠속에서 일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빽빽한 해송으로 에워쌓인 곳이라 바람이 차단되어 불길을 거의 어지럽히지 않았다.

불의 둘레에 열사람이 울타리가 벗겨진 말뚝처럼 서있었다. 우녀의 말 한마디가 그 불길 가운데 던져졌다.

"결사는 먼저 몸의 한 쪽을 바쳐 온 세상을 얻는 일입니다. 자아"

다만 이것뿐이었다. 고려 무신란(武臣亂) 시절 보조의 정혜결사문과 같은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규모에 해당하는 말을 이어간 것도 아니었다. 아니 천태종의 요세(了世)가 주도했던 백련결사문(白蓮結社文)의 내용도 이어받지 않았다.

다만 무육도 결사문은 말 한 마디뿐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로 삼켜진 것이다.

우녀에 이어 인담 합두 만화들의 순서로 손가락 한 마디씩을 더욱 힘을 내는 불길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 고통을 지긋이 견디는 한동안을 지나면 손가락 하나는 지글지글 불에 타서 나병환자의 그것처럼 되는 것이었다.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풍겼으나 그 냄새도 불길을 따라 허공의 어둠 속으로 뽑혀져 나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각의 차례가 왔다. 인담이 남각 옆으로 가서 그의 연비를 제지하였다.

"됐오. 남각은 이미 연비를 마친 것이오"

그 말은 만화에 의해서 손목이 잘린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남각은 인담의 제지를 무릅쓰고 성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불길에 집어넣었다. 그 행위가 너무 격렬해서 새끼손가락 이외에도 무명지 끝가지 타버린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이제 이 결사의 밤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결사를 없었던 일로 하고 이 섬을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밤 우리에게는 한오리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결사의 뜻에 복종하는 연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밤은 어느 세월보다 길고 깁니다"

이 말에 수원 수월이 흐득흐득 울었다. 이어서 파현들도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의 그 굵은 울음소리가 좀 약해진 불길에 던져지는 일은 사뭇 비장한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을 참은 자의 열정이기도 하였다.

이상한 일인 것은, 우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일찌기 예성강 하류에서 실성한 낭자로 머리에 이가 득실거리고 검불이 묻어나는 밑바닥 신세였다가 팔려오는 것을 인담이 사들인 바였다.

그런 여자가 섬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 공부보다 푹 익은 공부를 한 수행의 농염한 경지를 구사하고 있게 된 것이었다.

아니 그녀의 말 한 마디가 이곳 남자들의 그 누구도 조복(調伏)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의 고조된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횃불에 비친 얼굴들이 특별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감격은 연비로 인한 통증을 꿋꿋이 참아내는 힘을 낳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한 가운데의 불길이 가라 앉았다. 합두가 횃불 하나 하나를 불길에 던져 그것들마저 꺼져갔다.

"내려갑시다"라고 우녀가 그 합두에게 말하였다. 두 여자가 먼저 어둠 속의 길을 내려갔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홍어회·전유어·묵어포 등
이조 과방 924-9211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화환·바구니·신부화 꽃다발·생화·조화·동양란·서양란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8-3933 (자택)934-1748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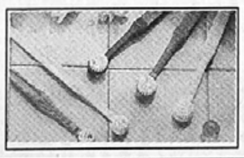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총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30-9372~3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롤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윤 조각실(불교미술)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중견그룹 계열사로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신장으로 인한 95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일선을 책임질 성실한 간부인력을 특별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단위경영 책임자	OO명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자금 및 제반사항 회사지원
간부사원	OO명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기업경영업무 경험자 •공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보사장급으로 관리 기획분야 경험자 •영관장교 출신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이력서 1통
4. 문의: 서울 554-4449
(주)웅진코웨이 김대원 556-6897